

# 家族價值觀의 變化

韓 南 濟

(경북대학교 사 회 학)

## 〈目 次〉

1. 서언
2. 결혼관의 변화
3. 부부관의 변화
4. 부모자녀 간의 가치변화
5.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
6. 오약 및 전망

## 1. 서언

지난 40년간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그 동안의 광범위한 사회변동은 사회제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였으며, 여기에는 가족제도의 변화도 포함된다. 가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보편적인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8.15해방 이후 지금까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이 빨리 진행되면서, 가족도 가구형태와 가족성원의 인간관계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외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회의 근대화에서 비롯되는 가족 가치관의 변화가 가족제도의 변화를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가족제도가 새로운 가족가치의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K.Kluckhohn이 지적한 대로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치지향(value orientation)은 깊이 뿌리 박혀있고, 주로 무의식적이고 너무 광범하게 퍼져있어서 그것들은 모든 행위분야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Kluckhohn, 1968:319)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근대적 가치관은 가족생활에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가족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한국가족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참 모습을 알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왔지만, 특히 가족생활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고 생각된다. 유교적 가치관은 가족생활의 규범과 가족성원의 인간관계의 성격을 정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어왔다. 물론 전통사회에서의 가치규범이 당시의 상류계층인 사대부 가족에서 뿐만 아니라, 하류 사회에서도 사회성원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 내면화되어 있었고, 어느 정도의 규제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미지수이지만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가치로 인정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지금도 유교적 가치관이 우리 가족생활의 여러면에 생활지침이 되고 있지만 유교적 가치관과 상충되는 새로운 가족 가치관이 보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난 40년 동안에 일어난 가족가치의 변화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관이 부분적으로 민주적 혹은 서구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일련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가족 가치관이라 할 때 사회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가치관을 모두 의미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가족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결혼관의 변화

가족은 결혼, 혈연, 양자를 통해서 결합되는 인간들의 집단으로 볼 수 있다면, 결혼이란 가족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하는가를 규정한 법과 관습의 체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과 가족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 가치관의 변화부터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관의 변화는 배우자의 선택방법, 배우자 선택의 기준 등 몇 가지 차원에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 선택의 방법에 대한

가치관이 상당히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선택방법은 크게 나누어 중매를 통한 방법과 자유교제를 통한 방법 등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대체로 사회체계내에서 가족과 친족의 중요성이 클수록 결혼은 개인의 일이 아니고 가족전체의 일로 간주되고 있으며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이 무시된 채 가장이나 친족의 연장자 등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대체로 결혼전의 남녀가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이 금기로 되어 있고 중매를 통한 배우자 선택이 제도화 되어 있다.

그런데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결혼은 가족과 친족집단의 일이라기보다 당사자들의 일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부속물적인 존재가 아니고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되면서 자유교제를 통한 결혼이 정착된다. 이런 경우 미혼 남녀의 자유로운 교제가 당연시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社会의 전통적인 유교적 도덕관은 남녀7세 부동석식의 가치규범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따라서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남녀의 교제가 죄악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중매를 통해서만 배우자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김두현, 1948:520) 해방 당시만 하더라도 신식교육을 받은 극소수의 남녀가 연애결혼을 할 수 있었으며 결혼은 의당 중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결혼전의 남녀교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은 점차 변화되어 남녀의 자유로운 교제가 허용 내지 권장되는 방향으로 변해 왔다. 이런 변화는 바로 배우자 선택방법의 변화로 구체화된다. 배우자 선택에 대한 가치는 점진적으로 전통적인 중매유형에서 근대화된 자유교제유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 방면의 최초의 연구는 1958년 실시된 이효재 교수의 연구이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958년도에 실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간 있었고(11.5%) 부모가 선택하되 자녀의 의사를 참작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었다(35.9%). 이 두 종류의 대답은 결국 중매결혼제도를 찬성한 것으로 본다면 과반수가 조금 안되는 수(47.4%)가 중매제도를 바람직하다고 본 셈이다. 반면에 나머지 과반수는(52.2%) 자유교제를 통한 배우자 선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딸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전적으로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다소 있었으며(15.3%), 부모가 선택하되 자녀의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었다(51.2%). 결국 66.5%가 중매결혼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딸에 대해서 교제를 통한 결혼을 찬성한 사람들은 아들의 경우보다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23%).(이효재, 1959:62) 같은 조사에서 남녀교제에 대한 가치관은 아주 보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주 근대적인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전의 남녀관계에 대해서 절대 반대라는 견해를 표시한 수도 상당수 되지만(32.7%), 반수 정도(49.5%)는 남녀교제를 반대하지만 가족이 알게되면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관계만 없다면 찬성한다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이효재, 1959:62).

그런데 같은 문제에 대해서 농촌주민들은 훨씬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959년에 기호지방 영남지방 호남지방의 각 1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들의 경우 부모가 마음대로 배우자를 정한다는 견해를 표시한 사람이 상당수 있었지만(20.2%), 부모가 정해놓고 본인의 의사를 듣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과반수 이상이었다(60.8%). 결국 절대 다수(81.0%)의 응답자가 중매결혼을 찬성한 셈이다. 딸에 대해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욱 많았다. 부모가 마음대로 정한다는 사람이 많았고(25.6%), 부모가 정해놓고 본인의 의사를 듣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었다(63.8%). 결국 90% 가까운 사람이 중매결혼을 지지한 셈이다. 농민들은 아들 딸에 관계없이 남녀가 자유교제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황경外, 1963:94~96). 1962년에 서울시내에서 아파트 거주하는 시민들과 경기·강원·경북지방의 농민을 상대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장남의 경우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반수정도가(51%) 중매를 그리고 그 보다 약간 적은 수가(54.5%) 연애 결혼을 찬성한 데 비하여, 농촌에서는 과반수를 훨씬 넘는 사람들이(78.2%) 중매를 지지하고 있었으며, 소수(18.8%)만이 자유교제를 통한 결혼에 찬의를 표하고 있었다(최재석, 1965:156, 1964:146). 1964년에 경북 안동군 풍천면에서 실시된 조사연구의 결과에서도 과반수를 훨씬 넘는(73.2%) 응답자가 교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비교적 소수의 사람(20.6%)만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회동에 거주하는 비동족들은 남녀교제에 대해서 다소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김택규, 1979:136). 196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경기도 이천읍에서 실시된 조사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아들의 경우 전적으로 중매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상당수 있었지만(23.8%), 부

모가 선택하고 자녀가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에 가까웠다 (41.6%). 이 두 종류의 대답을 한 사람은 과반수 이상으로(65.4%) 이들은 결국 중매결혼을 찬성하는 입장을 표시한 셈이다. 부모선택, 자녀결정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중매를 찬성하되 당사자의 의견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가 선택하고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얼마 안되었으며(15.5%), 전적으로 자유결혼을 찬성한 사람은 더 적었다 (13.3%). 결국 28.8% 정도는 자유교제를 통한 결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셈이다. 딸의 결혼에 대해서는 근소한 차이이지만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적으로 중매가 옳다고 응답한 사람이 다소 많았고(27.2%), 부모선택 자녀결정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좀더 많았다. (39.9%) 결국 과반수 이상(67.1%)이 중매를 찬성한 셈이다. 자녀선택후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응답한 사람도 다소있었으며(14.7%), 그 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12.4%)이 전적인 자유결혼을 찬성하였다. 결국 이들이(27.1%) 딸이 자유교제를 통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해영, 권태환, 김진균, 1967 : 152).

그런데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도시적인 생활방식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제 각급 학교에서 남녀공학이 당연시 되고 있으며 클럽활동과 미팅 등을 통하여 남녀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교제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남녀가 교제가 허용되는 단계에서 권장되는 단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교제를 통한 배우자 선택방법이 점차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1958년의 조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실시된 1980년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의 배우자 선택방법에 대한 가치관이 상당히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들에 대해서 중매결혼을 찬성한 사람은 47.4%에서 38.5%로 감소되었으며 자유교제를 통한 결혼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은 52.2%에서 61.4%로 증가되었다. 딸에 대해서도 중매결혼을 찬성한 사람은 66.5%에서 46.7%로 감소 되었고 자유교제를 통한 결혼을 찬성한 사람은 32%에서 53.5%로 증가 되었다(이동원, 1981 : 212). 아직도 아들보다는 딸에 대해서 남녀교제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20년 동안에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농촌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였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도시이주가 현저하였다. 이런 과

정에서 농촌의 미혼여성들이 많이 도시로 진출하게 됨에 따라 농촌 청년들의 배우자 선택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신부 부족현상의 부수적 결과로서, 농촌 청년들에게도 자유교제를 통한 배우자 선택이 적극 권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우자 선택방법의 변화 뿐만 아니라, 배우자 선택의 조건도 변하고 있다. 과거의 결혼은 당사자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의 창설이란 의미보다 기존 가족의 확대 혹은 계승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결혼 당사자의 개인적 자질보다도 가문과 같은 가족 환경적인 요인이 더 중요시 되었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의 배우자 선택조건—통혼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同姓不婚과 계급적 내혼제로 同姓間에 결혼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과 동일 계급내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사자의 인물, 행동, 용모, 재능 등이 문제시 되지만, 그에 앞서 양가의 문벌, 가풍, 재산 그리고 기타의 가정사정이 더 중요시 되었다 (김두현, 1948: 520, 528, 537). 이러한 우리의 전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959년에 실시된 기호, 영남, 호남지역의 농촌가족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며느리 볼 때의 첫째 조건으로 성격(25.1%), 교육(16.3%), 건강(15.3%) 다음으로 가풍(12.4%)과 가문(11.7%)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고황경外, 1963: 126~128) 사위 볼 때도 대체로 비슷한 조건들이 중요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23.3%), 성격(19.8%), 건강(12.9%), 가풍(9.4%) 가문(9.1%)의 순서였다 (고황경外, 1963: 133). 1965년 서울과 농촌지역에서 실시된 조사연구에 의하면 며느리를 고를 때 당사자의 인격을 중시한다고 말한 사람이 과반수를 훨씬 넘었으나(약 70%), 가문을 중요시 한다는 사람도 상당수(30%)에 달했다. 가문을 중요시한다고 응답한 사람중에서도 가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28.1%). 그리고 가문이 약간 참고가 된다는 사람은 과반수에 가까웠고(47.8%), 가문은 아예 보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은 소수(6.3%)에 불과하였다 (고영복, 1967: 324). 응답자의 3분의 1 가까운 숫자가 가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1960년대 중반의 한국 농촌사회에서는 자녀들의 결혼에 관한 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71년 대구시에서 조사된 결과에서도 학력이나 직업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아주 중요시 되지만 가문(집안 환경)도 상당히 중요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남제, 1984: 25~27). 1975년 대구와 부산

시내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반상간의 결혼에 대해서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적서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남녀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거나 결혼을 재고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유시중, 1977: 340). 배우자 선택방법에 있어서는 자유교제를 통한 결혼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지만 배우자 선택의 조건에 있어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치관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다. 同姓不婚制度는 아직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계급내혼제는 별로 문제시 되지 않으나 대체로 동일계층내에서 배우자가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정환경이 개인의 퍼스널리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가정환경을 중요시하는 것이 전근대적 태도라고 보기는 곤란하지만, 가문을 중요시하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반상간의 결혼과 적서간의 결혼을 기피하는 것은 배우자 선택조건의 전근대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 3. 부부관의 변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통적인 부부관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평등한 관계였다. 「유교는 순종을 부녀의 最高德으로 삼고 부부관계는 부자, 군신관계에 필적하는 것으로 보았다. 조선조에 있어서는 婦女三從의 敎義는 고조되어 婦必從夫의 관념은 婦德으로 되어 왔고 처는 그 남편을 가장이라 칭하였다」(김두현, 1948: 407). 한편 「남편은 처를 통제하고 처는 남편의 통제에 공순히 복종하는 것이 부부의 생활을 유지하는 이상적인 가치이념이었으며 여자(처)는 정조를 지키어 남편을 따르고 공경하며 받들어야하는 것이었다」(최재석, 1964: 30) 조선조 시대의 이러한 규범적 가치관이 실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의 실제 행동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이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지 통치시대에 어느 정도 변화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으나 해방당시에도 부부관계가 유교적인 가치관 위에 정립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산업화가 진행되고 사회전반에 걸쳐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보급되면서 부부관계도 좀 더 평등한 관계 그리고 우애적인 관계로 바뀌어 오고 있다. 부부가족의 확대는 남녀간의 평등주의와 병행되어 일어난다는 설명(Goode, 1970: 20)은 대체로 우리사

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부부가족이라 볼 수 있는 1세대 가족과 2세대 가족이 증가하고 3세대 가족이 감소되어 왔다. 이는 부부관계에 대한 일련의 가치관이 보다 민주적인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행위양식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같이 취급하여 가치변화의 방향을 알고자 한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부부간의 세력, 역할수행, 이혼관 등 몇 가지 분야에서 실제적인 측면과 가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알아봄으로써 부부관계에 대한 일련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알아 보고자 한다.

과거에는 부인은 남편의 통제에 공순히 따르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중요 가사의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시하여 왔다. 그런데 점차 중요 가사의 결정권이 남편에서 부인에게로 혹은 부부공동결정유형으로 변화되어왔다. 이는 남편의 세력이 약화되고 부인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곧 평등주의적 가치관의 보급과 병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간의 세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가사결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면 결정권의 증가는 세력의 증가 내지 지위의 향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인들이 행사하는 권한이 단지 위임된 권한일 뿐 본질적으로 남편과 부인의 세력관계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위임된 권한의 행사도 세력의 증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국가족내에서 가사결정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조사연구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 까지 농촌과 도시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이 방면의 최초의 연구는 1958년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효재 교수의 「가사에 대한 부부의 공동결정과 참여정도」에 관한 연구였다. 서울시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에 포함된 이 항목의 연구에서는 적어도 조사된 두가지 분야에서는 부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문제에 대해서 전부 혹은 대개 남편이 결정하는 가족은 비교적 적었고(19%), 전부 혹은 대개 부인이 결정하는 가족은 더 적었다(11.6%). 남편의 영향력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반수(67.3%)가 항상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다고 응답하였다(이 효재, 1959:39). 생활비의 사용책임은 부인에게 맡겨진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의 전부가 부인에게 맡겨진다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를 넘었고(66.4%). 일부만 부인에게 맡긴 사람들도 다소 있었다.

(25.6%). 그리고 전혀 부인에게 맡겨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소수 였다. (7.6%) 생활비의 사용권한이 부인에게 맡겨졌다고 해서 여성의 세력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일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낮았고 여성의 남성에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가치가 지배적이었던 전통사회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행위(부식, 의복구입)를 결정하는 데는 여성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졌던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광규, 1975: 159~160),

그런데 비슷한 시기인 1959년에 농촌가족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전통적 유형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지방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볼 수 있으나 전적으로 혹은 주로 남편이 생활비를 관리하고 있는 가족이 과반수 이상이었고(65%), 부인이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소수였다(15%). 그러나 자녀들의 혼사나 공부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의논해서 결정한다는 사람이 비교적 많고(39.6%), 전적으로 혹은 대체로 남편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비교적 많았다(34.7%). 부인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경우는 적었다(13.3%) (고황경外, 1963: 46~47). 1965년에 서울과 농촌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가정에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주로 남편의 의사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다소 많았고(22.4%), 부인의 의사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었다(2.8%). 부부가 의논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제일 많아서 과반수 이상(54.8%)이었다 (고영복, 1967: 328). 1969년에 서울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주요가사의 결정에 있어서 부부가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갖는가에 대하여 연구되었다. 그 결과 자율형(67.1%)이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일치형(24.9%)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 우위형(6.8%)이나 부인 우위형(1.2%)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석, 1982: 122). 1970년 대구시내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주택의 구입, 자녀의 취업 등 중요한 일에는 남편의 영향력이 크고 식비의 결정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는 부인의 세력이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남편이 많은 세력을 가진 가족이 다소 많고(24.6%), 부인이 많은 세력을 가진 가족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3.1%). 나머지 과반수 이상(70%)은 부부가 비슷한 권한을 가지되 일부는 의논해서 의견일치를 보아 가사를 결정하며, 일부는 부부가 각각 직접 참여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유형인 것으로 나타냈다 (한남제, 1984: 55~56). 1971년에 도시와 농촌 그

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부간의 세력관계가 어떻게 상이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과 농촌의 국민학교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농촌에서는 아직까지 아버지 지배형이 많고(54.1%), 그 다음으로 평등형(22.4%), 어머니 지배형(17.6%), 양권형(5.9%)의 순서였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평등형이 제일 많고(35.5%), 그 다음으로 어머니 지배형(28.6%)과 아버지 지배형(27%)은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양권형은 소수(9.0%)에 지나지 않았다(이온죽, 1977:102). 이 연구에서는 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아버지 지배형이 많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평등형과 어머니 지배형이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958년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1980년에 서울에서 실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녀문제 결정에 있어서 전부 혹은 대개 남편이 결정하는 가족은 비교적 소수(9.9%)이며, 전부 혹은 대개 부인이 결정하는 가족 역시 같은 비율(9.9%)로 나타났다. 그리고 절대다수(79.9%)가 항상 같이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원, 1983:77). 1981년에 한국갤럽조사 연구소에서 부부의 결정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일상 생활비의 지출만은 부인에게 맡겨진 경우가 제일 많고, 가족여행의 목적지, 가옥, 아파트의 결정, 자녀의 교육방침, 자녀의 학교선택, 자녀수의 결정 등 모든 분야에서 부부가 의논해서 결정하는 가족이 제일 많고 부인 혼자서 결정하는 비율보다는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3:103~108). 1982년에 대구시내에서 몇가지 가사결정에 관해서 부부중 누가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편 우위형과 처 우위형이 비슷하고 (각각 21.6%와 21.8%), 부부 평등형이 제일 많았다(40.3%). 그리고 가족합의형도 적지 않았다(12.6%) (유시중, 박경구, 1982: 101).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부가 수행하는 역할변화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기계적 유대관계에서 유기적 유대관계로 변해감에 따라 가족, 친족집단은 유기적 유대관계에서 기계적 유대관계로 변해간다고 주장된다 (Adams, 1980:96). 사회가 덜 분화되어 있으며 동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성원들이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때 가족집단내에서는 성에 따른 역할분담이 뚜렷하였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되어 분화되고 이질적인 사람으로 구성되게 되며, 사회성원들이 전문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가족내에서는 성에 따른 역할 분담이 둔화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남녀유별이라 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했던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부부가 가정내에서 수행

하는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나 생산계층의 여자들은 남자들과 같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주로 밭농사와 면포의 생산을 담당하였다 (김택규, 1979 : 754~764, 김용숙, 1979 : 619~721). 그리고 가정내에서는 의식 (衣食)에 관한 가사노역을 主務로 삼았다 (김두현, 1948 : 408). 해방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통적 가치관이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가족내에서 성에 따른 역할분담이 엄격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 이후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고 직업구성면에서도 농업인구가 점차 감소되어갔다. 산업화 과정을 거친 대다수의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일부 미혼여성들이 섬유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혼여성들은 가정주부의 역할만 수행하고 남자는 생계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산업화가 좀 더 진행되면서 여성의 취업이 증가되고 가족내에서 역할의 재분담 현상이 일어난다. 종래 여성고유의 역할로 인정되어온 분야에 남성들이 참여하게되고 반면에 남성고유의 역할이 여성에 의하여 수행되기도 한다. 우리사회에서도 이러한 역할변화가 일부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여성고유의 것으로 인정되어오던 역할, 이를 테면 음식준비 등은 아직 거의 전적으로 여성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가족성원들의 직업생활과 가정내에서의 역할을 구분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남녀유별의 가치관은 여성의 직업생활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과거의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사회규범상으로는 남성들은 당연히 가정밖에서 활동했으며 여성이 가정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었다.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도 남자는 생계담당자로서 가정 밖에서 경제활동을 해오고 부인들은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근자에 이르러 여성들이 가정과 떨어져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취업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되어 왔다. 1965년에 서울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이 반드시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소수(4.5%)였으며, 될 수 있으면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한 사람도 과반수에는 훨씬 미달되었다 (32.3%); 경우에 따라 결정한다는 대답이 제일 많았다 (41.8%). 그러면서도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아주 적었다 (고영복, 1967 : 332).

1975년에 대구시내에서 실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많은 가정주부와 세대주들은(15.7%) 부인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로서 집안살림을 잘 하는 것이 남편을 돋는 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남편을 격려하고 보살펴 주

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34.7%).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한남제, 1984:114). 1979년 남녀근로자를 상대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거의 절대다수(여자 82.7%, 남자 77.1%)가 여자가 잘 되는 길은 남편을 잘 섬겨서 남편이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온죽, 1982:200). 남편으로 대표되는 가족의 성공과 별도로 여성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중요시하는 비율은 아직 근로계층에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에 서울시내에서 실시된 조사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회가 있으면 직업을 갖겠다는 수가 과반수를 넘고 있지만(64.4%). 여성들의 직업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장생활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여성의 경우 일생동안 직업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적었고(5.5%). 결혼후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까지 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과 결혼전까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25.6%). 막내자식 취학후 재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람은 상당수 있었으며(22.0%). 결혼 후 자녀출산때 까지 직업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자도 있었다(14.7%). 무조건 직업이 없는 것이 좋겠다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6.6%) (이동원, 1983:83). 그런데 일반여성에 대해서 보다도 딸의 직업생활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고 딸보다는 여느리의 직업생활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81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전국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정부인(어머니)의 취업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은 비교적 적은 편이고 나거지는 무조건 반대 혹은 조건부 찬성이었다. 본인이 원한다면 직업을 갖는것이 좋다는 사람은 전조사대상자 중에서 과반수에 훨씬 미달되었다(27.6%). 결혼을 하면 직업을 갖지 않는것이 좋다는 견해가 제일 많고(39.7%).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상당수에 달했다. (21.7%) 아기를 갖게 되면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약간 있었다 (9.9%)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3:75).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의 직업생활에 대해서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가 변화되어 왔지만, 아직도 가정생활 특히 자녀양육에 지장이 없을 때 허용될 수 있다는 가족생활우선의 가치관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내에서의 가족성원 특히 부부의 역할분담은 전통적인 역할분담양식이

대체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 1962년 서울과 지방에서 실시된 조사연구에 의하면 방청소, 마당청소, 이불개고, 쪄는 일, 식료품 구입, 밥짓는 일, 설것이, 재봉일, 세탁, 유아 돌보는 일 등에서 모두 부인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교육지도에서는 부인보다 남편의 역할이 크며, 사친회 출석과 친척집 방문은 도시에서는 부인이, 농촌에서는 남편이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재식, 1966: 389~395). 1974년에 농촌주민들을 상대로 실시된 조사에서도 청소는 주로 부인(67.6%) 혹은 자녀가(19.8%), 집수리는 주로 남편(80.2%)이 그리고 장에 가는 일은 대체로 부인(56.8%) 혹은 남편(34.2%)이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최신덕, 김의순, 1975: 224). 1975년 대구시내에서 조사된 결과에서도 가사역할의 전통적 분담형식이 대체로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이 음식준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집안청소를 하는 일도 드물다. 이 두가지 일은 대체로 부인이 하고 있으며 집수리는 남편이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웃과 사귀는 일, 금전지출, 자녀의 건강관리 등은 주로 가정주부들이 담당하고 있다(한남제, 1984: 158). 1979년 서울시내 재학중인 중학생의 학부형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식사준비는 전적으로 혹은 주로 부인이 한다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95.6%). 남편이 한다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집안청소, 세탁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옥선희, 1980: 18). 그리고 주로 여성들이 반상회와 학부형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제한된 의미에서 대외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유아 돌보는 일은 부부가 함께 하는 비율이 상당수에 달하여(44.7%). 상당히 변화된 역할분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전통적인 역할분담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 셈이다. 1982년에 대구시에서 실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엌일은 전적으로 혹은 주로 부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86.3%). 부부공동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소수였다(5.9%) (유시중, 박경구, 1982: 96). 청소·세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학교행사 참가나 자녀상벌, 친척방문 등은 부부공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며 생활비 관리는 부인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

부부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으나, 다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며 부인은 가정내에서 집안살림을 하는 사람이란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지는 않으나 점차 여성의 취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일

부 짚은 부부가 공동으로 유아 돌보는 일에 참여한다거나 자녀의 교육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등 역할분담이 변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온 음식준비 청소 등의 역할은 아직도 전적으로 부인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부부는 대체로 평등하다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하고 있으나 이는 반드시 동일한 역할수행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가치관의 변화는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결혼한 부부는 백년해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 역시 서서히 변하고 있다. 제도적 가족에서 우애적 가족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부부간에는 애정과 우애가 중요시되고 애정과 우애에 이상이 생겼을 때 부부는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부부 관계도 점차 일종의 계약관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중의 어느 한 쪽이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부부간의 계약은 계속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해석된다.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부부에게 이중기준의 적용이 당연시 되어왔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때로는 성적인 탈선을 해도 묵인되지만 부인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전혀 용납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들은 가족과 자신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일이 미덕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점차 이중기준의 적용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육받은 여성층에서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혼율 역시 교육받은 층에서 많다.(최재석, 1982 : 364). 1983년의 이혼소송은 24,175건으로 82년 보다 19.5% 증가하였고, 협의이혼은 39,567건으로 82년보다 22.2%증가하였다 (동아일보 : 1985 7월 26일자). 결국 제도의 안정성보다 개인의 자유 혹은 행복을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의 일반적 가치관이 부부생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이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959년 기호, 영남, 호남 등 3개 지방의 농촌지역에서 실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있는 경우 남녀모두 절대다수(90.2%과 90%)가 이혼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에 반대하는 수는 과반수를 약간 넘었다(남자 56.6% 여자 53.1%). 그러나 자녀가 없는 경우, 이혼에 찬성하는 수도 상당히 많았다 (남자 36.8% 여자 44.7%) (고황경외, 1963 : 156 ~157). 1965년의 조사에서는 서울시민의 31%, 농촌주민의 22%가 필요한 때 이혼하는 것이 옳다고 응답하고 있다(고영복, 1967 : 335). 부부는 백년해로해

야 한다는 생각에서 많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1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혼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사람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4분의 1정도(25.5%)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3:119). 그러면서도 이혼은 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89.4%)을 지적한 사람이 제일 많았고 그 이외의 이유, 이를 태면 사회의 비난(21%) 종교상의 이유(25%) 이혼후 생활의 어려움(1.7%) 등은 극히 미미한 이유일 뿐이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3:122).

그동안 한국 사람들의 부부관계는 권위주의적인 관계보다 평등한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그리고 가족주의적 관계에서 계약적 관계로 가치관이 변화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회의 일반적 가치관이 함께 따라 가족가치관도 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며 많은 가사를 부인에게 위임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도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동안 가족의 규모(가족원수)가 많이 축소되었다는 점도 민주적 가족가치관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가족 사회학자들은 보통 가족원수가 많아질수록 한 두 사람의 지배와 보다 강한 내면적 조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결국 가족의 크기가 커질수록 지배적 상징으로서의 아버지의 위치는 강해진다고 주장한다(Elder Jr. & Bowerman, 1963:893). 그러나 아직도 부부가 완전히 평등해야 한다거나 부부에게 적용되는 이중기준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거리가 멀다. 우선 규범적 가치관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법에서는 남녀의 차별과 부부의 차별이 뚜렷하다. 현법 제34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민법상 호주상속, 재산상속, 친권행사 등에서는 남성우위의 조항들이 있다. 민법 984조의 호주상속의 순위, 909조 1항의 부모의 친권행사규정, 1000조 1항, 1009조 1항과 2항의 재산상속규정에는 남녀에 대한 차별이 뚜렷하다. 그리고 일상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아직은 부부가 반드시 평등한 입장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부부관계가 제도적 혹은 권위주의적 관계에서 우애적 관계로 변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부의 평등한 위치가 동일역할의 수행 등으로 오해될 때 가족내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올 가능성 이 크다.

#### 4. 부모 자녀간의 가치변화

가족을 수평적 관계 즉, 性을 기준으로 볼 때 부부관계가 軸이되고, 수직적 관계 즉 세대관계로 볼 때 부모-자녀관계가 축이 된다. 부부관계는 결혼이라는 법 혹은 관습적인 절차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이지만 부모 자녀의 관계는 혈연관계이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과 가족제도가 변함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의 내용이 변하게 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부모 자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변함으로써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서서히 변화되어 왔다. 우선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자녀중에서도 아들과 딸중 어느 편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족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자녀들이 결혼한 이후에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점에서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가계의 영속이 대가족제도의 근간이었기 때문에」(김두현, 1948 : 268). 자녀 특히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당시에는 집을 계승할 남아를 출산치 못하는 일은 효도에 어긋나는 일로 의식되고 있었으며(최재석, 1964 : 27), 자식이 없다는 것은 부부로서, 특히 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혼이 억제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몇 가지 안되는 이혼사유의 하나가 되었다 (김두현, 1948 : 606). 따라서 우리사회에서는 자식이 많다는 것, 특히 아들이 많은 것은 가족의 큰 복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활수준이 낮고 의학지식이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유아사망율이 높았기 때문에 가족당 자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최재석, 1963 : 464). 여하간 오랫동안 多男多福이란 생각이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존속되어 왔다. 이러한 가치관은 8·15 해방이후에는 변하지 않았다. 1959년에 농촌지방에서 실시된 조사연구에서도 복의 첫째 개념으로 남자 응답자는 가족이 화목한 사람(23.8%), 자식이 많은 사람(22.5%)을, 여자 응답자는 자식이 많은 사람(27.5%), 가족이 화목한 사람(19.0%)을 각각 첫째와 둘째로 지적한 바 있다 (고황경외, 1963 : 163). 그러나 해방이후 지금까지 40년간은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되어오는 과정

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결혼생활을 하는 거의 모든 부부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형편이지만 희망자녀수는 서서히 감소되어 왔으며 남아 선호 사상도 점차 약화되어 오고 있다. 지금까지 희망자녀수가 계속 감소되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지역과 연구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고 대체로 농촌지역주민들이 많은 자녀를 희망하고 있으며 반대로 대도시 일수록 제한된 자녀수를 원하고 있다. 1959년 현재 농촌의 희망자녀수는 4.1명이었다. 그 당시의 서울 시민들의 희망자녀수는 3.3명이었다. 그런데 희망자녀수는 연차적으로 감소되어 1965년에는 전국적으로 3.9명이었고 농촌은 4.1명, 읍지역 3.6명, 도시지역 3.4명이었다. 1966년에는 전국적으로 3.9명으로 1965년과 같으나 서울 시민의 희망자녀수는 2.8명이었다(윤종주, 1967). 1962년 서울과 강원도, 경상북도의 농촌지방에서 실시된 조사연구에서는 도시인의 51.7%가 2남1녀를 원하고 있었으며 농촌주민의 43.7%가 3남2녀를 원하고 있었다(최재석, 1965: 151). 1965년부터 1967년 사이의 한국인의 희망자녀수는 아들 3~4명, 딸 1~2명이 보통이었고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3.9명으로 설명된 논문도 있다(이효재, 1973: 63). 그러나 또 다른 조사에서는 희망자녀수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65년 서울과 지방에서 실시된 조사연구에 나타난 이상적인 자녀수는 2.9명(중위치)이었다(고영복, 1967: 323). 그리고 대다수(82%)가 산아제한에 찬성하고 있었다. 1975년에 실시된 대구시에서의 조사에서는 2남1녀를 원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43%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1남1녀(30.3%), 2남2녀(14%)의 순이었다. 평균 희망자녀수는 2.89명으로 나타났다(한남제, 1984: 80). 희망출산 자녀수의 제한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의 변화로도 볼 수 있지만 가족가치관에 있어서 운명주의적 요인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타고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양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많은 수의 자녀만을 원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생각이 없어지고 있다.

희망자녀수가 감소되어 오면서 남아선호사상도 다소 적어지고 있다. 한국가족에서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지배했던 것은 가계계승과 노후의 경제적, 심리적 의존이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혈통(사실상은 姓氏), 재산, 제사 등이 모두 아버지에서 아들로 상속되는 부계가족제도에서 가계계승자로서의 아들이 필요했던 것은 당연하였다. 그리고 노후를 위해 달리 저축할 방법이 없었던 물물경제시대에는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면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생긴 남아선호사상이 아직은 뿌리깊게 남아있지만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 정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9년에 기호, 영남, 호남지방에서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자녀가 없을 때 소실을 얻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를 넘고 있었으며(남자 58.3%, 여자 64.9%), 양자를 들여야 한다는 사람도 상당수에 달했다 (남자 응답자 중에서 27.5%, 여자 응답자 중에서 25.3%). 딸만 있는 경우에도 소실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남녀 모두 과반수에 가까운 숫자였다 (남자의 40.7%, 여자의 44.6%). 양자를 들여야 한다는 사람은 그 보다 다소 적었다 (남자의 34.4%, 여자의 31.5%) (고황경外, 1963: 143). 우리나라에서 축첩제도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녀 특히 남아에 대한 집념이 강했는가를 알 수 있다. 남아선호사상은 아들 딸에 대한 차별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들 딸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교육을 희망하는가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1959년에 실시된 농촌지역의 조사에서 아들에 대해서는 대학(66.1%) 혹은 그 이상(22.4%) 공부시켜야 한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으나 딸에 대해서 대학(31.7%)과 그 이상(9.4%)의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모두 아들보다 적었다 (고황경外, 1963: 69). 자녀에 대한 재산분배 방식에 대해서도 아들 딸에 대한 차별의식은 현저하게 나타난다. 재산을 아들 딸에게 다 같이 물려준다는 견해는 소수(12.6%)에 지나지 않았고 장남에게 많이 준다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었다 (63.4%) (고황경外, 1963: 79). 1965년에 경기도 이천읍에서 조사된 바에 희하면 조사대상자의 절반(50%)은 딸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아들 딸이 꼭 같다고 응답한 사람은 그 보다 다소 적었고(46.7%) 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소수(2.4%)였다 (이해영, 권태환, 김진균, 1967: 155).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반수 가까운 사람이 아들 딸의 중요성이 같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응답인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도시보다 농촌에서 아들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천 지역의 조사보다 몇년 뒤인 1971년 경북 상주군에서 실시된 조사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대상자의 절대다수(90.2%)가 아들이 꼭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윤종주, 1974: 194). 그런데 1970년 중반에 실시된 어촌지방에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6

년 전북지역에서 실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76.3%)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상당수가(20.7%) 아들이 꼭 없어도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동원, 1979:517) 1957년 대구시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절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자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들이 꼭 있어야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비교적 적었다 (약27%) (한남제, 1984:77). 1979년에 남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혼인관과 직업관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남아선호사상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응답자의 과반수가(60.9%) 아들 딸 구별 않겠다고 응답한 데 비하여 남자 응답자 중에서 이와 같이 응답한 사람은 과반수에 훨씬 미달되었다 (39.8%).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 까지 계속 자녀를 출산하겠나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쪽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온죽, 1982:197). 현재 한 가정에서 아들 딸에 대한 차별의식은 많이 시정되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는 대체로 차별의식이 없어진데 비하여 재산상속 등에 있어서는 아직도 「出家外人」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아들 딸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딸 보다 아들을 더 원하는 남아 선호사상이 계속되고 있는 구체적 이유를 알아 보기 위하여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 및 가계계승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검토하겠다.

1962년 2월에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에서 실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부양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자식은 장남인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농촌에서는 과반수가 넘었고(66.2%) 서울에서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34.5%). 서울에서는 장남과 차남이하의 독립한 아들이 모두 부모부양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상당수에 달했으며(20.0%), 자식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한 사람은 그 보다 훨씬 많았다 (42.7%). 농촌에서는 부모부양이 장남과 차남이하의 독립한 아들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비교적 적었고(10.5%), 자식들 전부의 책임이라고 한 사람은 그 보다 다소 많았다 (21.5%) (최재석, 1965:147). 그 만큼 농촌에서는 장남의 부양책임이 강조된 셈이다. 도시 주민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동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후의 연구에서 판명되고 있다. 자녀들이 결혼한 이후 부모와 동거하는 데 데 대해서 서울의 아파트 주민들 중에서는 소수만이 찬성하고(24.1%), 다수(73.8%)가 별거를 희망하고 있는데 비하여 농촌에서는

다수(76.4%)가 동거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며, 소수(21.8%)만이 따로 사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석, 1965 : 158). 1965년 이천읍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 본 결과 과반수를 넘은 응답자(61.3%)가 노후의 의존을 들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19.3%)들이 대를 잇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었다 (이해영, 권태환, 김진균, 1967 : 157). 1969년에 실시된 「도시인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노후의 부모와 동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을 때는 별거하고 늙으면 동거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46.9%) 그 다음으로는 별거를 주장한 사람이 많았다(30.7%). 언제나 한집에 모셔야 한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21%) (이효재, 1971 : 88).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아들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나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은 강하지 않았다. 과반수 이상이 어느 아들이나 형편대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68.2%), 꼭 맏아들이 모셔야 한다는 생각은 그 보다 훨씬 적었다(28.7%). 딸이 모셔야 한다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1.0%) (이효재, 1971 : 90 ~91). 여기에서 모신다는 말은 반드시 계속적인 동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실시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81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일본의 경우(52.8%) 보다도 적었고,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미만이었다(46.4%). 따라서 별거를 희망하는 수는 과반수 이상이었다(52.8%) (한국 갤럽조사연수소. 1983 : 130).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녀로부터의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따로 살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한 사람이 제일 많았고(37.7%), 그 다음으로 같이 살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다(27.2%). 같이 살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19.2%). 나머지는 따로 살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였다(15.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3 : 131). 그러나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도시에 거주하거나 농촌에 거주하거나 관계없이 자녀들이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경삼남북도와 대구시에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의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절대다수(85.3%)가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남제, 1984 : 311).

현재 한국의 젊은 부모들은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별거하고 가능하면 경제적으로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모 부양이 자녀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부모부양은 꼭 장남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직계가족을 구성하는 자녀부부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와 같이 반드시 장자부부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성별과 출산순위에 관계없이 형편에 따라서 자녀 중 누구라도 될 수 있도록 가치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된다 (최홍기, 1983:167).

자녀가 있어야 가문의 대를 이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자녀 특히 아들을 원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자녀의 부양책임은 사화보장제도가 발달될 때 국가나 사회단체가 대신 맡을 수 있겠으나, 부계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아들을 통하여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좀처럼 변할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도 인용한 바와 같이 1965년에 경기도 이천읍에서 실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들이 더 중요한 1차적 이유로 노후의존이 훨씬 많고 (61.3%), 대를 잇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비교적 적었다 (19.3%) (이해영, 권태환, 김진균, 1967:157). 이러한 결과는 부계가족제도의 원리에 대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노후에 의존할 자녀가 있다는 것은 가계계승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도 동시에 내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975년에 대구시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후에 의존하기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적어지고 있으며, 자녀가 있어야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야 가정생활에 의미가 있다는 견해 다음으로 자녀를 통한 가계계승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한남제, 1984:85). 1981년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자녀를 기르는 의미로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제일 많아 과반수를 넘었다(68.2%). 노후의 경제적 정서적 의존을 의미하는 응답, 즉 노후를 안심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지적한 사람은 과반수에 훨씬 미달되었다 (한국갤럽조사연수소, 1983:142).

우리나라에서 남아를 통한 가계계승이란 부계가족제도의 원칙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치체계는 법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호주상속 및 분가에 관한 민법 984조, 780조 1항,

788조 1항, 797조 등은 남아를 통한 가계계승을 뚜렷이 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파악하려면 “孝”로 이해하는 것이 첨경이다. 부모를 섬기는 일은 구체적으로 공손, 시중, 부양, 안락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최재석, 1964: 22~25), 부모에 대한 공손의 마음은 자식이 마음속에서만 가져서는 불충분하고 어디까지나 자식의 태도, 동작 등의 외형에 까지 표현되지 않으면 안되는 점에 그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자식은 항상 부모곁에서 살면서 부모에게 불편이 없도록 봉사하는 것이 지상의 의무였다. 그런데 이런 규범적 가치가 어느 정도 실생활에 반영되고 있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당시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너무 엄격한 것이어서 그대로 실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재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부모자녀관계에서 효가 중요하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이미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는 유교적 가치가 가르치던 대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절대적 복종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부모자녀와의 관계도 권위주의적 관계보다는 이해하는 관계로 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고(도시 아파트 77.9%, 농촌 73.9%),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도시 17.9%, 농촌 18.8%)이며, 고생하면서 길러주는데 감사를 드린다는 사람도 많았다(도시 62.8%, 농촌 50.5%). 그리고 무엇인가 부모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도시 28.3%, 농촌 17.0%) (최재석, 1965: 152~153). 1959년에 농촌지방을 상대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남자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부자간에 의견충돌이 있을 때, 철이든 자녀가 부모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자녀들은 부모들의 의견에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42.6%), 경우에 따라서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 절반 이었다(50%). 자녀 의견대로 해도 좋다고 한 사람은 소수(5.4%)였다. 여자 응답자들은 자녀의 의견대로 해도 좋다는 의견을 좀 더 많이 표시하고 있었다(18.1%) (고황경外, 1963: 62~63). 그런데 1962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도시와 농촌에서 모두 압도적으로 많았다(도시 95.2%, 농촌 87.4%). 이러한 의견을 표시한 사람 중에서도 절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비교적 적었고 때로 존중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았다(최재석, 1965: 155). 1980년 대구와 진주시내에서

부모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부모는 자녀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거리감이 적을수록 좋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보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권위주의적인 것 보다는 민주적인 것이 좋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는 사후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통사회의 가치였다. 부모의 사후 3년 동안 계속되는 장례, 3년 후에 시행되는 제례를 엄숙히 하는 것과 부모의 유지를 계승하는 것 등이 부모사후에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이 행할 수 있었던 효도였다. 지금 장례절차는 가정의례준칙에 의하여 많이 간소화되었고 제례 또한 상당히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한 가치관 역시 많이 변하고 있다. 1959년의 농촌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밝혀진 제사에 대한 태도는 그대로 좋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82.9%), 고칠 점이 있다는 의견(4.5%)과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1.6%)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고황경外, 1963 : 67) 1962년의 서울과 농촌지방에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것이라는 견해가 과반수 이상지만(도시 아파트 57.2%, 농촌 70.7%), 습관 때문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있었다(도시 아파트 26.1%, 농촌 4.4%). 그리고 제사가 소용없다는 생각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도시 15.3%, 농촌 6.2%) (최재석, 1965 : 149). 제사에 실시된 이천읍에서의 조사에서 그대로 좋다는 의견이 많았지만(44.5%), 아주 혹은 약간 간편하게 고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그대로 좋다는 의견보다 오히려 약간 많았다(45.8%). 아주 없애는 것이 좋다는 견해는 물론 소수(6.5%)에 지나지 않았다(이해영, 권태환, 김진균, 1967 : 161). 1975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자녀양육의 의의로서 자녀가 있어야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항목은 모든 조사항목 중에서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다(한남제, 1984 : 84~85). 결국 한국의 가족가치는 강한 조상숭배와 가족전통으로 특징지워지던 유형에서 기존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화를 높이 평가하는 유형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Kluckhohn이 말하는 과거 지향적 가족가치관에서 미래 지향적 가족가치관으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Kluckhohn, 1968 : 322~323).

## 5.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

한국사회에서 지난 40년간 일어난 가족가치관의 변화 중에서도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변화를 빼놓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동양사회 특히 한국사회에서만 중요시 되는 것으로 주장되고 그 역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그런데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그것이 지배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시기와 정도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다. Sorokin은 공동사회 (Gemeinschaft)에서는 흔히 가족주의적 인간관계가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정의, 착취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며 권리와 의무가 관습에 의해 결정되고 계약이 별로 없으며 남자가 여자에게 그리고 주인이 하인에게 공정한가 하는 것이 별로 문제시 되지 않는 그런 관계 즉 가족주의적 관계가 성립된다」고 주장한다(Folson, 1948 : 453). 구라파에서도 8세기에서 12세기까지는 가족주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관계가 특징적이었다. 그러나 근세사회에 들어 오면서 점차 가족주의적 인간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서구사회에서는 현재 가족집단 내에서도 가족주의적 인간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계약적 관계로 변하고 있으며 부부는 한 몸이며 남편으로 대표된다는 가족주의적 생각이 사라지고 있다 (Folson, 1948 : 454).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지배적이고 이것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길 교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따라 서로 다르며 개인의 기질과 성격을 따라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한 국가 또는 민족의 성원 모두가 한결같이 나누어 가진 가치관의 특색을 찾아 보기是很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대와 민족의 특색을 나타내는 우세한 경향은 있게 마련이라고 하면서 한국인의 가치관의 일반적 특색은 주로 동양적 전통의 영향아래 발달한 것과 서구적 근대사조의 영향을 받고 형성된 것으로 나누고 있다. 동양적인 전통의 유산을 강하게 반영한 한국인의 가치관의 일반적 특색으로 「가족주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고 내지 행동의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김태길, 1982 : 163~164). 그러면서 그는 가족주의를 가족에 대한 애착 내지 관심이 다른 의욕과 동기를 압도하고 행동의 주도권을 잡는 생활태도를 가르키는 말이라고 하였다. 「가족주의적 생활태도는 가족의 번영 또는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가족주의는 개인주의와 대립되며, 민족주의 내지 국가주의와 대조를 이룬다. 오늘의 한국은 한편으로는 서구적 개인주의의 물결이 휩쓸려 들어오고, 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단결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가족주의도 점차 그 세력이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는 하나 아직도 그 잔영은 상당히 농후한 색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김태길, 1982:165). 최재석 교수는 가족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가족주의를 ① 사회의 구성 단위는 집이며 ② 이 집은 어떠한 사회집단보다 종시되며 ③ 일 개인은 이 집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④ 집안의 인간관계도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하의 신분 서열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⑤ 이와 같은 인간은 비단 가족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가족의 외부사회에까지 확대되는 사회의 조직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최재석, 1976:23). 이어 한국가족내의 부자관계의 불평등성, 낮은 부녀자의 지위 특히 우리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일상용어에 있어서 여자를 비하하는 말들이 많은 것을 지적한다.

사회단위로서의 집은 건축물 이외에 현실의 가족집단,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는 관념적인 가족집단 그리고 동족집단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평가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최재석, 1976:42~44).

조선조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고, 해방이후에도 우리사회에서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강했던 것은 사실이다. 1962년 서울과 지방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개인보다 집의 우위성을 강조한 가치관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을 희생하더라도 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개인의 결혼이 늦은 것은 좋은 일이라거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도시 85.5%, 농촌 87.2%), 그런 일이 소용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소수였다(도시 11.0%, 농촌 11.5%)(최재석, 1965:144), 그리고 집의 유지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 사람이 대다수이며 부정적 태도를 보인 사람은 소수(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조사에서 집의 화평을 위해서는 부인이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절대다수였다(도시 95.8% 농촌 95.2%) (최재석, 1965:146). 이러한 가족(집)중심적 가치는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앞의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아들을 통한 가계의 계승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결혼시에는 가족적 환경이 중요시된다. 뿐만 아니라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자녀의 유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가족을 중요시하는 표시가 되는 것이다. 1981년에 실시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도 자기자신(개인)에게 중요한 것으로 자신의 건강다음으로 가족이 제일 많이 지적되었다(62.9%)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3:150).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불변의 가치로 남아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일단 가족주의에 대한 최재석 교수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고찰해 보면 가족주의적 가치가 어느 정도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사회의 구성단위가 집이며 이 집은 어떠한 사회보다 중시된다는 점에 있어서 근본적 가치변화는 없는 것 같으나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구성단위가 개인인가 가족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가족이 집단생활의 최소단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의 구성단위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자질이나 성취업적에 의해서가 아니고 가족의 지위에 의하여 평가 받는가, 그리고 가족성원 개개인의 이익과 가족집단의 이익이 상충될 때 어느 쪽이 우선 되어야 하는가를 문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적어도 개인이 주로 「아무집 자손」으로 평가되던 시대는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세대간의 사회적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낮은 계층에 속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식은 전문직 등 사회경제적으로 상류계층에 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이룩한 지위에 의하여 그 사람이 평가된다. 다음으로 가족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가의 문제인데, 앞에서 인용한 조사결과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개인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가족을 위해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는 가족보다 개인을 혹은 개인과 가족을 다같이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가족의 뜻 보다는 당사자의 뜻이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일반적 태도가 변하는 것이라든지, 한국갤럽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개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이고 그 다음으로 가족이 지적된 점 등을 그 예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사회의 구성단위가 꼭 집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점차 개인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다소 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집(가족)이 다른 어떤 사회집단보다 중시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 적어도 G.Murdock이 지적한 대로 공동거주, 경제적 협력 그리고 자녀의 출산으로 특징지워지는 집단이라면(Murdock, 1949:1), 가족이 다른 어떤 사회집단보다 중요시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같이 살며 경제적으로 하나의 단위가 되어 소비 혹은 생산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

녀를 출산해서 양육해 나가는 것이 가족이라면 그 이상으로 개인에게 더 중요한 집단이 달리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한국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가족을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다른 사회집단 이를 테면 국가나 민족의 이익에 손해를 주면서까지 가족을 위하여나 가족을 위한 태도가 배타적일 때 가족주의의 부정적 영향은 크게 문제가 된다. 가족주의를 「일개인이 집에서 독립하지 못한다」, 「집안의 인간관계가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하 신분의 서열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간은 비단 가족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가족 외의 외부사회에까지 확대되는 사회의 조직형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개인이 집에서 독립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1960년대 이후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연령층의 남녀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단독이주한 결과 독신자 가족과 1세대, 2세대 가족이 증가되었다는 사실들만 보아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단 집을 떠난 뒤에도 경제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한다는 점과 바로 가족을 위해서 집을 떠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다고 말 할 수 있겠으나, 절대적인 독립인가 절대적인 종속인가의 논리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독립의 정도를 논한다면 이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가족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된다. 집안의 인간관계가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 아니라 상하 신분의 서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족주의의 한 표식으로 본다면 가족주의적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T.Parsons도 지적한 바 있지만 가족은 성과 세대에 의하여 역할과 지위가 구분되는 소집단이다 (Parsons, 1955 : 35~41). 부모와 자녀, 남편과 부인간에 완전히 자유롭고 절대적으로 평등한 관계란 가족집단의 속성상 성립되기 힘들다. 그런데 앞의 여러 논문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한국사회에서의 부부간의 관계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에 의하여 성립되었던 불평등한 관계에서 상당히 평등한 관계로 변하고 있다. 이는 가사 결정권, 부부의 역할수행,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상당히 변하고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가능하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가족내의 인간관계가 사회로 확대되는 점에 있어서도 최근의 한국사회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

된다. 공식적인 관료조직을 가진 집단은 선진 사회에서와 다름없이 일정한 규범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신입 사원의 채용과 승진은 물론이고 모든 업무처리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물론 아직도 공식적인 rule이 무시되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상사를 부모나 형처럼, 직원을 가족원 처럼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경우 공식적인 생활에서의 상하관계가 사생활에 까지 연장된다. 이는 동창, 동향등 각급 조직체의 선배와 후배 사이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가족주의적 가치가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중요한 가치관으로 남아있다. 앞으로도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완전히 없어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가족 집단의 특수성 때문에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가 소멸될 수 없으며 유교적인 윤리관을 배경으로 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서도 가족주의의 소멸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반드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가족주의가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지양되어야 할 이유를 여러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불안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주의적 가치관에 힘입은 바 있으며 가족주의는 개인에게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주고 가족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그 동안 우리가 단기간에 이룩한 경제성장에도 기여하였다」고 주장된다(조혜정, 1985 : II -37). 그러나 가족주의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강조된다. 「체제유지가 아니라 체제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가족주의는 매우 부정적인 면을 들어낸다. .....가장으로서의 임무때문에 시민으로서의 개혁의지를 쉽게 포기한다거나,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일하도록 역할이 주어진, 가정에 고립되어 있는 여성이 역사의 변화방향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이 될 가능성은 회박한 것이다. 이런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도덕적 개인주의를 내면화시킨 주체적 시민으로 성숙해 나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강력한 집단주의의 가치에 근거한 가족에서 길러지는 성원은 자율적이기 보다는 타율적이며 창조적이기 보다는 모방적이어서 역사창조작업에 있어 무력감을 느낀다. 역사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주의는 결과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공리적 가족

주의로 흐를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족주의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강조된다(조혜정, 1985: II-41~42). 이와 같은 주장에는 수긍할 점이 많으나 다소의 이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한국남성들이 가장으로서의 임무때문에 시민으로서의 개혁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그것이 가족주의적 가치관에 기인하는가는 논의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개혁」이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innovation의 뜻을 포함한다면 가장으로서의 임무와 개혁이 양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타당성이 의심된다. 그리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일하도록 역할이 주어져 여성들이 가정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방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그것이 가족주의에 기인하는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부인들이 가정주부의 역할을 통해서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사회현실 이를 테면 직업구조가 지금 여성의 사회진출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가도 문제시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타율적 모방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가족주의의 의미를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감정위주, 온정위주의 가치관과 병행됨으로써 한국적인 사회분위기의 특징을 조성하고 우리사회의 근대화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이 큰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리판단에 있어서 정을 앞세울 때 합리적인 사리판단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되는 폐단이 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가족주의적 가치관에 내포되어있는 긍정적인 면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현대사회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 나간다면, 구체적으로 가족주의가 태집단에 대해서 배타적인 성격을 갖지 않도록 승화시킬 수 있다면,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현대사회에서 보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태길 교수는 「가족주의 경향이, 사람이 한 개인의 태두리를 넘어서서 타인과 깊게 융화되는 유대의 원리를 그 안에 품고 있다고 본다면, 이 유대의 원리가 좁은 집단(가족)에 애착하는 배타성을 극복하고, 보다 넓은 범위의 융화를 추진하는 협동과 단합의 원리로서 승화될 수 있으면, 그것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많은 욕구를 조화롭게 만족시킨다”는 우리의 이상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김태길, 1982: 176~177)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

면 가족주의를 좁은 집단에 애착하는 배타성을 극복하고 보다 넓은 범위의 융화를 추진하는 협동과 단합의 원리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해답을 찾아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집단 자체를 자율적인 집단으로 그리고 민주적인 집단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면 가족을 중요시하는 가족주의적 가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집단에 배타적인 작용을 함으로써 사회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가족이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는 집단이 아니고 그것을 신장시키는 집단이 될 수 있을 때 가족주의가 반드시 정실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버릴 수 있을 것 같다. 가족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살려나가면서 부정적 측면을 제거해나가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6. 요약 및 전망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가족가치관이 점진적으로 근대적 가족가치관으로 대체되어 왔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결혼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시되며 자유교제를 통한 결혼이 허용되는 단계에서 권장되는 단계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교제를 통한 결혼보다 중매를 통한 결혼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경향도 남아있다. 배우자 선택의 조건도 가문이 중요시되던 시대에서 개인의 자질이 중요시되는 시대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 계층에서는 적서 간의 결혼을 피하는 등 전통적인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다. 과거의 부부관계는 군신관계에 비할 수 있을 만큼 불평등하였으나 점차 민주적인 관계로 변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 부부가 평등한 입장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법률적인 권리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정내에서의 부부가 수행하는 역할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자녀교육과 가사운영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부부관계도 가족주의적인 관계에서 계약적인 관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단 결혼한 부부는 백년해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점차 불가피할 때는 이혼할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 역시 상당히 변하고 있다.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희망하는 자녀수는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남아선호사상도 적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아들을 통해서 가계가 이어져 가야 한다는 생각은 강하게 남아있으며, 이 때문에 남아선호사상

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효”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으나, 자녀는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가족주의적 경향이 상당히 쇠퇴되어 왔지만 아직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다른 집단보다도 가족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가정내에서의 위계질서가 뚜렷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가족적인 분위기」가 미화되고 있다. 대체로 도시 보다는 농촌에서,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 많은 연령층에서 전통적인 가족가치가 강하게 남아 있다.

앞으로 가족가치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가족가치도 서서히 근대적인 유형으로 변해갈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좀더 결혼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시 될 것이며, 자유교제를 통한 결혼이 어느정도 정착되어 갈 것이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평등주의 사상이 더 확대되어 나갈 것이며 점점 더 계약적인 성질을 띠어 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수되어 부부간의 일상적인 갈등을 이혼이나 별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도 증가할 것이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지금까지의 변화방향과 마찬가지로 점차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자녀도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 부모와의 동거를 바라지 않는다는 생각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모두 증가되어 갈 것 같다. 가족주의적 가치관 역시 점차 그 영향력을 잃어 갈 것이다. 개인을 회생하면서 가족을 위하여하는 사람이 감소 될 것이며, 사람을 가족의 일원으로 평가하려는 경향도 감소되어 갈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을 중요시하는 과거지향적 가족가치관에서 변화를 중요시하는 미래지향적 가족가치관으로 서서히 변해 갈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가족가치의 변화는 일정한 한도내에서만 계속될 것 같다. 앞으로 우리의 가족가치가 반드시 서구적인 가족가치와 동일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뜻이다. 가치관의 변화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외부적 조건의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교제가 아무리 권장된다 하더라도 남녀의 순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변한 서구식의 교제풍토가 우리나라에도 조성되지는 않을 것 같다. 부부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진다 해서 가정내에서 부부의 역할이 균등하게 수행되

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관계가 계약관계의 성격을 띠어 간다고 해도 이혼이 증가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자녀와 가정을 중요시하는 또 다른 가치가 이혼을 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자녀와의 관계도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자녀의 의견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변해가지만, 결혼이후에도 부모와의 동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으며, 남아를 통하여 가계가 계승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속한 가족을 중요시 한다는 의미에서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주의가 사회발전에 부정적 영향만을 준다는 생각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사회에서의 가족가치가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채 구태의연한 상태로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앞으로 급격한 변화가 오리라는 생각도 타당치 않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가족과 같이 인간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회제도는 점진적인 변화가 바람직하다. 가족 가치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 (참고문헌)

Adams, B.N.

1980 *The Family :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Elder, Jr. Glen H. & Bowerman, Charles E.

1963 "Family Structure and Child Rearing Patterns : The Effect of Family size and Sex Compo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8

Folson, Joseph, K.

1948 *The Family and Democratic Socie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imited

Goode, W.J.

1970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 New York:  
The Free Press

Kluckhohn F.R.

1968 "Variations in the Basic Values of Family Systems" in N.Bell & E.Vogel(ed.),  
The Family, New York: The Free Press.

Murdock, G.P.

1949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Parsons, Talcott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linois : The Free Press.

고황경, 이효재, 이만갑, 이해영

1963 韓國農村家族의 研究,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고영복

1967 “한국 가족문화의 变用과정”, 아세아연구 10-2

김두현

1948 朝鮮家族制度研究,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용숙

1979 “韓國女俗史”, 고대민족문화연구소刊, 한국문화사대계 7

김태길

1982 韓國人의 價值觀研究, 서울 : 문음사

김택규

1979 氏族部落의 構造研究, 서울 : 일조각

1979 “韓國部落의 慣習史”, 고대 민족문화연구소刊, 한국문화사대계 8

옥선화

1980 “韓國都市家族의 役割構造分析”, 성십여자대학논문집

유시중

1977 “韓國大學生의 結婚觀”, 최문환 박사 추념논문집

유시중, 박경구

1982 “한국도시 가족의 가사역할과 세력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북대 동양문화

연구 9

윤종주

1967 “한국가족의 男兒에 대한 選好度問題”, 인구문제논집 4

1974 “농촌인구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논문집

이광규

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 일지사

이동원

1977 “어촌 가족의 자녀 간에 대한 연구”, 성곡논총 8

1981 “도시 가족(서울)에 관한 연구 - 결혼에 대한 태도비교 : 1958~1980 - 이화여대 문화논총 39

1983 “도시 가족(서울)에 관한 연구 (II) - 주부의 역할 및 자녀 간의 변화 : 1958~1980”, 이화여대 문화논총 42

이온죽

1977 “韓國家族의 夫婦間의 權威關係에 대한 類型的接近”, 한국사회학 11

1982 “한국여성근로자의 혼인관과 직업관”, 아세아 여성연구

이해영, 권태환, 김진균

1967 “가족가치변용에 대한 일고찰”—중간도시 이천읍을 중심으로 하여—, 진단학  
보 31

이효재

1959 “서울市 家族의 社會學的 考察”이화여대 문화논총 1

1971 都市人의 親族關係, 서울 : 한국연구원

1973 “한국인의 아들에 대한 태도와 가족계획”이화여대 문화논총 21

조혜정

1985 “가족윤리”—공리적 가족집단주의와 도덕적 개인주의—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편, 현대사회와 가족

최신덕, 김의순

1975 “韓國農村夫婦의 役割과 適應에 관한 研究”이화여대 문화논총 26

최재석

1964 “韓國家族의 近代化過程”, 이 상백박사 회갑기념논총.

1964 “韓國家族의 傳統的 價值意識”, 아세아 연구 7-2

1965 “韓國人의 家族意識의 變容”, 진단학보 28

1976 韓國人의 社會的 性格, 서울 : 개문사

1982 現代家族研究, 서울 : 一志社

1983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서울 : 一志社

최홍기

1983 “현대한국의 가족제도와 가족의식”, 정신문화연구원 편, 국민의식의 현재적 진  
단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

1983 韓國人의 家庭性格과 子女教育, 서울

한남제

1984 韓國都市家族研究, 서울 : 一志社